

행방불명 아동 '위기 징후' 1년전 포착했지만...

2023년 4월 장기간 예방접종·진료 기록 없는 것 첫 확인 아버지 "아들 외국 있다" 진술 믿고 검증없이 조사 마쳐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 출입국기록 조회 신청 권한 없어

제주에서 행방불명 된 아동의 위기 징후는 지난해 4월 처음 포착됐지만 이 아동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는 지난 6월 말에야 시작했다. 시간이 생명인 실종 아동 수사가 이미 첫 단계에서부터 어그러졌다.

▶"외국 있다" 말만 믿고 조사 종결=제주도는 A군의 위기 징후를 2023년 4월 처음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추출해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 시스템에서 2021년 5월 태어난 A군의 예방접종기록이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런 내용을 지난해 4월 도에 통보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A군의 예방접종·병원 진료 기록은 2021년 9월 이후부터 없었다.

A군이 위기 아동으로 분류되자

관할 주민센터 공무원은 학대 여부 등 양육 환경을 조사하려고 가정을 방문했다. 그러나 A군을 번번이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매뉴얼 상 위기 아동 조사는 대면 조사가 원칙이다. 또 부모가 조사를 3차례 이상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A군의 정확한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시 조사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됐다. 제주시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아들이 아내와 함께 외국으로 출국했다"는 A군 아버지 말만 믿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매뉴얼 상 부모의 이같은 진술이 나올 경우 출입국 기록 조회 등 어떤 방식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도 한계로 작용했다.

A군은 올해 4월 다시 위기 아동으로 분류됐다. 첫 조사가 끝난 후

에도 A군의 예방접종·병원 진료 기록은 여전히 없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A군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고, 올해 6월 25일에는 "A군을 찾아달라"는 수사 의뢰서가 경찰에 제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외국에 있다"던 A군의 해외 출국 기록은 전무했다.

▶출입국 기록 조회 신청 권한도 없어=위기 아동 조사 과정에서 부모 또는 관계인이 "아동이 해외에 있다"고 진술했다면, 이를 검증할 가장 명확한 방법은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각급 학교의 경우 취학 예정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정확한 소재를 파악한다.

2016년 초교 입학 예정이었던 신원영군이 부모의 장기간 학대로 숨진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그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각 학교 장에게 출입국 기록 조회 권한을 주는 등 안전 확인 의무를 강화했다.

기초생활수급 아동이 외국에 있을 때도 공무원들은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다. 대상 아동이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담당 공무원이 직접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순 없고 출입국 측에 조회를 요청할 권한만 갖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에게 해외 출입국 기록을 직접 확인할 권한도, 조회를 요청할 권한도 없다. 아동복지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출입국 기록 조회 신청 권한이 있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럴 경우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아동학대 관련 한 공무원은 "학교가 취학 예정 아동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하는 것과 우리가 위기 아동을 조사하는 것과 그 목적은 다 비슷한 것인데, 왜 이런 차이를 두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차량 4대 들이 받고 도주한 뺑소니범 검거 5·16도로서 사고 후 도주... 다음날 탈미

5·16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차량 4대를 들이 받고 달아난 40대 운전자도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39분쯤 한라산 성관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와 버스 등 4대를 잇달아 들이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A씨는 사고 후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도주했다가 이튿날 오전 8시 20분쯤 사고 현장으로부터 10여km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 도로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로 지인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고 아침에 눈 떠보니 풀 숲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로 나왔지만, 사고 후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해 혈액을 채취해 음주와 마약 등 약물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학생 대상 교원 성범죄... 제주 5년간 '7건'

진선미 의원실, 전국 교육청 전수조사 '성희롱' 가장 많아... "제도개선 필요"

최근 5년간 제주에서도 교원들의 학생 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모두 4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제주에서는 모두 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3건이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5건으로 가장 많고 성추행 1건, 성폭력 1건 순이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편지로 사퇴하고, 대전지역 여교사가 동성 제자들과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생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 중 상당수는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되면서 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대상 교원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과 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 학교 내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고침=2024년 7월 11일자 4면 '예방접종 진료 기록 없는 위기아동 행방불명' 제하의 기사에서 2021년 11월 어머니와 A군 형이 출국

한 기록이 있다고 보도됐지만 사실 확인 결과 A군 형이 아니라 A군 누나로 확인돼 이를 바로 잡습니다.

EV배터리거점 화재 대응 훈련 제주테크노파크·제주소방서

전기차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약 10%)에서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수거처리장에 대한 화재 대응훈련이 실시됐다.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와 제주소방서는 11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위치한 제주TP 에너지센터에서 입주기업과 함께 민관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했다. 제주에서 공장형 배터리 관련 시설 화재대응 소방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훈련은 최근 경기 화성시 아라셀 배터리 공장과 제주 우도면 리튬배터리 전기오토바이 화재 등을 계기로 배터리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제주소방서는 지휘차량 2대와 고성능 펌프차 3대, 물탱크 1대 등 특수 장비 10대를 이번 훈련에 투입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소방서는 11일 오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위치한 제주TP 에너지센터에서 입주기업과 함께 민관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제주에서 공장형 배터리 관련 시설 화재대응 소방훈련은 처음이다. 이상민기자

했다.

자위소방대 임무를 수행하는 제주TP 미래융합사업본부, 입주기업 근로자와 합동으로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에 보관된 배터리 화재

발생을 가정해 초기 진화와 대피 등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훈련은 ▶배터리 팩과 모듈 화재 발생시 신고와 대피, 화재진압 등 초기 대응 ▶최적의 소방진입로 확

보 ▶소화전 위치 확인 및 소방용수 확보 ▶내외부 시설물 구조 파악 등 현장인식 훈련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백규탁기자 haru@ihalla.com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